

소비자재무설계사 민간자격증 운영의 발전방안 연구1)

김민정(충북대 소비자학과 조교수)

서인주(상명대 소비자주거학과 조교수)

육경영(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조교수)

소비자재무설계사는 금융관련 공·사기업체에서 소비자의 재무설계 및 관련 상담 업무를 수행하며 소비자의 장단기 재무목표에 따른 현금관리, 위험관리, 금융 및 부동산 투자 관리, 신용관리, 노후설계 등 개인 재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재정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전문인력이다. 소비자업무협회에서는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고자 자체적으로 소비자재무설계사 자격인증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소비자재무설계사 자격인증을 받은 회원수는 490명으로 이중 대부분은 지방소재 대학의 학생들이었다. 이러한 소비자재무설계사 자격인증은 지난 2013년 민간등록자격으로 등록²⁾ 되면서 자격증 발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과 검정시행 등 자격증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즉,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던 방식과 더불어 소비자재무설계사 업무능력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시행을 통해 확인하는 등 민간자격증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재무설계사 민간자격증 운영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전국의 소비자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최종 20명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하는 5개 과목에 대해 11명(55%)이 5개 과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으나 3개 또는 4개 과목으로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7명(35%)이 있었다. 필수과목에 포함된 각 과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가계경제론 15명(75%), 재무설계 20명(100%), 투자와 보험 18명(90%), 소비자학 12명(60%), 소비자조사법 10명(50%)이 해당과목을 유지하거나 과목명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재무설계 과목의 경우 소비자재무설계로 과목명을 바꾸어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은퇴(상속)설계, 재무상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과목을 필수과목에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필수과목 대체 교과목으로써 각 학교의 최근 변경된 교과목이 언급되었다.

둘째, 선택과목 수는 현재와 같이 2개 교과목에 대한 의견이 75%로 가장 많았으나 현재의 선택 대상 과목 중 가정자원관리, 회계원리, 경제학, 생활법률 과목의 경우 선택교과목 유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50%씩으로 동일하였다. 이 밖에 추가가 필요한 선택교과목으로 은퇴설계,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 재무관리, 금융상품론 등 최근 추가되거나 변경된 각 학교의 교과목을 제안하였다.

1) 본 연구는 한국소비자업무협회의 지원에 의해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 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되었음.

2) 민간자격등록번호 2013-1515

셋째, 소비자재무설계사의 현장실습 요건에 대해서는 있는 것이 좋다는 10명의 의견과 없는 것이 좋다는 9명의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현장실습 요건이 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다른 자격증과 같은 40시간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되 재무설계업무 이외에 금융기관 관련 실습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현장실습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재무설계 및 금융기관의 업무성격 상 대학생 현장실습이 용이하지 않고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넷째, 민간자격증 운영을 위한 검정시행에 대한 조사결과 85%는 검정과목을 1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부 2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검정방법에 있어서는 4지 선다형의 객관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고(40%), 문항수는 40문항과 50문항 각각 35%로 동일하였다. 합격기준은 50%가 60점 이상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연 2회 검정시행이 적절하다는 데에 65%가 찬성하였다. 검정시행은 권역별 시행이 적절하며(80%), 학기성적 결정 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검정을 시행하고(85%) 협회회원이 아닌 경우의 시험응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회원 가입 후 시험을 보는 경우 회원가입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회원이 아니더라도 응시는 가능하게 한 후 자격증 발급 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가의견으로 제안되었다. 특히 민간자격증 관리에 있어서 회원가입을 강제화 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다섯째, 검정시행의 응시자격으로는 교과목 이수 및 현장실습 요건과 상관없이 응시하고 최종 자격증 발급시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에 65%가 찬성하였다. 이때 검정시행 합격의 유효기간은 3년 또는 졸업시까지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최종 발급된 자격증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90%가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55%가 검정면제요건을 둘 필요가 없다는 데에 찬성하였다. 특히 검정시행료에 있어서는 55%가 교과목 이수 요건 심사료, 검정응시료, 자격증 발급비용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적정 금액으로는 이수요건 심사료의 경우 5천원과 5만원이 각각 2명이었고 검정응시료는 3만원이 3명, 2만원이 2명이었으며 자격증발급비용은 3만원이 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응시료에 대한 결정은 검정응시자의 수와 필요비용 등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섯째, 검정시행 과목으로 예상하고 있는 소비자재무설계 개론의 내용 중 32개 내용을 출제기준안으로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자의 대상'과 '유언의 종류' 내용은 출제기준안 포함 항목으로 찬성하는 비중이 55%로 다른 내용들에 비해 낮았다. 출제기준안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재무설계 교육프로그램 구성, 자산관리기초이론 등의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재무설계의 개념과 과정, 재무설계환경의 이해, 재무설계방법 등으로 간소화한 구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소비자재무설계사 민간자격증 검정과목 출제기준(안)에 대한 찬성 비중

대분류	중분류	내용	찬성(%)	대분류	중분류	내용	찬성(%)
소비자 재무 설계의 이해	소비자 재무설계기 초	재무설계의 개념	85	자산의 증대	투자의 기초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75
		재무설계의 필요성	80			화폐의 시간가치	90
	소비자 재무설계 과정	재무목표의 수립과 자료수집	85			투자의 기본개념	80
		재무상태의 분석 및 평 가	90		투자수익률과 위험	75	
		재무설계안의 작성 검토 및 수정	90 75		금융투자	금융상품의 종류	85
자산의 관리	현금관리	예산의 필요성 및 장단 점	85			주식투자의 특징	80
		예산 작성방법	75			채권투자의 특징	80
		예산 실행방법	75		부동산 투자	부동산의 개념 및 특징	80
	신용 및 부채관리	신용의 의미와 종류	80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70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방법	85			부동산 투자의 대상	55
		부채의 종류 및 특징	80	은퇴설계	노후설계의 개념과 필요성	85	
	위험관리와 보험	부채 적정성 평가	85		노후자금 마련-공적연금	80	
		위험의 종류와 관리방법	85		노후자금 마련-퇴직연금	80	
		보험의 특성과 기본원리	90		노후자금 마련-개인연금	75	
	보험의 분류	85	상속설계		상속순위와 유류분제도	75	
		유언의 종류		55			